

## 시인 용아를 찾아서



▲ 용아생가 사랑채. ©조은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46번길 24

📍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3호

🕒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관

🏠 <https://www.gwangsan.go.kr>

💬 #용아 박용철 #시문학파 #광산구 #떠나가는 배 #초가집



광주 광산구에는 지상과 지하로 모두 열차가 지나다니는 동네가 있다. 광산구가 광주시로 통합되고 행정구역 명칭도 리가 아닌 동이 붙게 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광주의 어르신들에게는 여전히 송정리, 소촌리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곳으로 남아 있다. 열차가 이따금 굉음과 함께 풍경을 빠른 속도로 가로지르며 지나가는데도 묘하게 고요하고 느릿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 광산구는 20세기 초,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한 시인이 태어나 자랐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때 시인이 살았던 그 집은 현재 광주의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인의 집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을 타러 가는 이곳 역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 걸어가다 보면, 차와 사람이 더욱더 드물어지는 한적한 동네가 나온다. 지형이 솔뚜껑처럼 완만해서 예부터 솔머리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그 동네는 조선 중기 문신인 놀재 박상과 그의 일가가 터를 잡고 모여 살기 시작하며 이룬 충주 박씨 집성촌이었다. 박상의 먼 후손으로서 솔머리마을에서 태어나 광주 광산구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그 시인은, 우리에게 '용아(龍兒)'라는 호와 시 「떠나가는 배」의 작자로도 유명한 박용철이다. 그리고 그곳 솔머리마을에서 유일하게 지붕에 벚짚을 이고 있는 집이 박용철 시인의 생가인 '용아 생가'이다.

광주에서는 박용철 시인을 기리는 기념물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생전에 그가 남긴 것들이 우리 문학사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증거일 테다. 하지만 사람들이 좀처럼 시를 읽지 않는 시대가 되면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고 그의 생가를 찾아오는 이들도 점점 적어지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이력보다 동료 문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손수 문예지를 만들어 수많은 시들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 용아 박용철의 삶을 더 많은 이들이 기억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의 삶만큼이나 아름다운 그의 시들도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었으면 한다.

## 전일빌딩45



▲ 전일빌딩245. ©전일빌딩245 홈페이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 5·18 사적지 제28호

🕒 매일 09:00 ~ 19:00, 신정/설날/추석 휴관

🏠 <https://www.gwangju.go.kr/jeonil/>

💬 #전일빌딩 #5·18 사적지 #동구 #금남로 #역사문화공간



내가 기억하는 전일빌딩의 첫인상은 2000년대의 모습이다. 휴일이었지만 사무실에 불일이 있었던 엄마를 따라 여섯 살의 나는 전일빌딩에 가게 되었다. 건물의 외벽은 색이 바랜 데다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과 기둥에는 실금이 가득했다. 내부는 작고 불투명한 창문에 블라인드까지 쳐져 있어서 한낮인데도 어둡고 음산한 곳이었다. 나는 엄마의 회사에 처음 와봤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여기저기 쓰다녔다. 그러자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줬다.

“이 건물에는 귀신이 있어. 혼자 사무실에 앉아 야근하고 있으면 발걸음 소리와 무언가로 바닥을 내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 위층은 비어있는데도 말이야. 나중 퇴근하면서 경비 아저씨께 물어보면 위층을 돌아다닌 적이 없대.”

나는 사무실에서 조용해진 대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귀신이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건물의 창문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어린이가 되었다. 엄마의 회사는 귀신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겨울에 동파가 되는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참지 못해서 이사를 갔고, 그 후 나는 얼마간 전일빌딩을 잊고 지냈다.

2016~2017년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앞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했는데, 245개의 탄흔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2017년 전일빌딩은 5·18 사적지 제28호로 지정되었다. 덕분에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적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 비난했던 전두환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일빌딩은 처음 245개의 탄흔이 발견되었고 마침 도로명 주소도 ‘금남로 245’라서 ‘전일빌딩245’라는 이름의 역사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간이 된다면 전일빌딩245의 옥상 전일마루에서 금남로를 내려다보는 것을 추천한다. 민주의 종과 분수대, 상무대, 옛 전남도청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명동과 총장로를 오가는 젊은이들이 금남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이제 전일빌딩의 귀신이 무섭지 않다. 두려운 건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오늘날 왜곡되는 진실이다.